

제433회 국회 (임시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4일(화)

장 소 성평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가. 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9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3)
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5.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0)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8)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12.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5)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8)
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9)
1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1)
18.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한규 의원·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3)
1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2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3)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5)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0)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5)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0)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6)
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9)
3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4)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6)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0)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6)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6)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4)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4)
3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5)
39. 업무보고
 -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6
 - 가. 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9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3)
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6
4.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6
5.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6
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6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0) 6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8) 7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7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7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7
1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5) 7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8) 7
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9) 7
1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1) 7
18.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한규 의원·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3) 7
1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7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7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7
2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7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3) 7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5) 7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0)	7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5)	16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0)	16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6)	16
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9)	16
3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4)	16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6)	16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0)	16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6)	16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6)	16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4)	16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4)	16
3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5)	16
39. 업무보고	16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14시47분 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윤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김윤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새로 보임받은 김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가 성평등·가족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어젠다를 맡고 있는 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 보좌진 9명 중의 7명이 여성입니다. 거기에는 사회에 갓 들어온 20대 여성 청년부터 위킹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 보좌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성평등·가족 문제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고 일상에서 겪는 매일매일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인 성평등의 실현, 젠더폭력의 근절,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조금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김윤 위원님께서서는 준비된 성평등가족위원인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련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0분)

○**위원장 이인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직위원회다 보니까 오늘…… 어제부터 장관 청문회가 좀 있습니다. 농해수위 장관 또 기획예산처장관, 이런 위원회에 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출석이 조금 미진한데 한 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분이 아직 안 오셔서 그동안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할 수 있도록……

혹시나 김한규 위원님, 하실 말씀이나 이쪽 간사님들이나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할 말이 많은데요.

○위원장 이인선 할 말이 많지요?

○김한규 위원 드디어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박홍배 위원님께서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할 말이 많으신 이연희 위원님 할 말을 못 했네요.

그러면 박홍배 위원님이 오셔서 어쨌든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가. 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백선영 외 50,9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3)

(14시53분)

○위원장 이인선 그다음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4.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5.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호 2211610)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8)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5)
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8)
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9)
1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1)
18.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한규 의원·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3)
1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2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3)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5)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0)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6항까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7일 총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 관련 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1인 사업자를 제외한 결혼서비스업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미애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에 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해바라기센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남희 의원, 정춘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과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보수지침 마련 및 준수 노력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선 의원, 이연희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선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법안들은 부디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말씀하시지요.

○**박홍배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결혼서비스법 소위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안감 그리고 부담이 상당합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거래구조 그리고 실태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 예비 부부들은 예식장 그리고 스프레 예약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전쟁을 치룹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한 가정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자 큰 비용이 오가는 고비용 시장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제도를 설계할 때는 현장의 실제 거래구조 그리고 소비자 경험을 좀 더 촘촘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하면 법안에 가격 공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가격 공개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소비자는 여러 경로를 뒤져야만 겨우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가격만 제시가 되고 필수 추가비용, 추가비용인데 앞에 필수가 붙습니다, 필수 추가비용 이렇게 붙는 방식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공개한다는 형식만 갖출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계약 전에 총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1인 영세사업자가 이 법 적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숨고와 같은 플랫폼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각 개별 개별 서비스를 1인 영세사업자와 직접 예약을 해서 준비를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인 사업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1인 사업자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구조 그리고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정보공개 기준의 구체화, 1인 사업자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저는 법 시행 전까지 부처에서 함께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법안은 통과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청년 예비부부들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 관리법이 의결을 앞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먼저 심도 있는 토론으로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김한규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법안 발의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스톱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소중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영역의 일이 추가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환적으로 법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원민경 장관님과 정구창 차관님 그리고 청소년가족정책실의 모든 실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법안의 체계·자구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치열히 토론하고 검토해 준 이옥순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이 계약금을 떼이는 이른바 먹튀 사고와 갇감이 추가금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큰 상처를 입어 왔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결혼서비스업 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돼 제도권 내에 편입되고 보증보험 가입과 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면 예비부부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속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가족부에 당부드립니다.

법사위 심사 단계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인 사업자가 제외된 것 등 법의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또 여러 가지 살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등 제도의 골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청년 예비부부들이 더 이상 불안함 없이 행복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장관님, 오늘 두 분이 주시는 말씀,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원했던 스톱메법이 통과되니까 제대로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제정법률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연희 위원 이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고 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냥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소위에서 논의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부처 간에, 특히 재정 당국에서 반대 내지는 보류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평등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양육비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면 이게 소득기준하고 양육비 지급받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이인선 의원님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정 부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보류를 재정당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한 이게 떼이는 돈도 아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환수하는 그런 돈인데 이것을 마치 재정 부담이 큰 것처럼 주장을 해서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부모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여야 위원들이 합심해서 법안 심사를 했고 지금 통과를 시키면 이 부분은 성평등부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성 있게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물론 모든 법안의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할 수는 있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조금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소득 순위가 높은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평등부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김한규 간사님 법안 소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재정 쪽에서 우리가 밀려서 이 부분을 이 법안에 대해서 수위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담대하게 설명하시고 뚫고 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또 들어 보시지요.

다른 위원님…… 애기 나왔으니까 하실래요?

○김한규 위원 저도 양육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안소위 단계에서 재정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성평등가족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당시에 이미 소득요건이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자격을 제한했던 것인데요. 지금 저희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여당이 됐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소득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득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다면 지금 재정당국이 기존의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의 변화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100% 다 신청하게 되면 1년에 252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로 신청한 비율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200억 가까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기준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252억이 다 필요하지는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양육비 이행 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문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선 예.

○김한규 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님, 전 원장님, 실제로 만약에 소득기준을 없앨 경우에 올해 실제로 252억이 다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적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신청 추이나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지현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5000가구 좀 안 되게 지급이 됐고 그 이후로 삼사백 건씩 신청하는 가구가 조금 늘고 있는데요. 아직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중지 건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처음에 지급하다가 양육비 이행금액을 지급하면 중단되는 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자 총량하고 또 이게 소득분위별 분포를 앞으로는 조금 봐야 돼서 금액이 250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더라 지금 제도 초기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제 소견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김한규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간단히……

○위원장 이인선 예.

○김한규 위원 실제로 얼마가 소요될지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252억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보시면 실제로 당사자들이 소득기준 요건 때문에 서류 준비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1인당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 맞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지현 예.

○김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아동의 생계에 필요한 정도의 금액이라면 소득기준으로 인한 신청의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게 실제로 이혼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 700억 정도의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관료들께서 252억 때문에 여야 합의한 법안을 꼭 반대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 의결돼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제가 의견을 낸바 결혼서비스업의 대부분이 1인 영세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들의 피해 사례도 1인 사업자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정법률안은 의결되었지만 향후 성평등부에서는 이 부분을 시행하는 와중에 1인 사업자에서 생기는 피해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피해가 지속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사회초년생들의 피해 사례를 보호해 주는 의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안에 1인 사업자가 설령 제외됐더라도 결혼서비스업 시장에서 1인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동태, 피해 사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연말에 국정감사라든지 그때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1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조금 넘어갈까요?

장관님께서서는 법률안에 대해 인사하실 때 정리하셔 가지고 간단간단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9항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5항과 제19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11조~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누어 드렸었는데 볼 시간이 없으셨지요?

다음은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참고로 자료가……

○**위원장 이인선** 다 안 올라와 있지요?

○**김한규 위원** 컴퓨터에 올라가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 안내를 한번 해 주시면……

○**위원장 이인선** 컴퓨터 안에 보시면 지금 축조심사에 대해서 19항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있는데 사실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정법이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이름, 제명과 제1조~제5조까지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 및 제7조,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6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애써 주신 김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양육비 선지급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제도 초기이고 회수시스템을 구축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운영 성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개정 취지를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5)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0)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6)
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9)
3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4)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6)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0)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6)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6)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4)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4)
3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5)
39. 업무보고
 -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관

(15시23분)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

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어질 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성평등가족부 및 소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6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존경하는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성평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조직이 개편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이를 발판 삼아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사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는 등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협업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인구감소지역 특화 청소년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 가족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올 한 해에도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모든 가족과 청소년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분야별로 필요한 정책을 세심히 살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평등가족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 성평등 확산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한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처 성평등 정책의 주요 심의·의결 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 불균형 문제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고민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핵심산업 연계형 교육을 신설하는 등 취·창업 서비스와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하여 범정부 협업 기반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탐지·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밀관계 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스톱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폭력예방교육 개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 개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등 보다 실효적인 젠더폭력 예방·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편안한 노후와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취약·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새로이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도입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기관 등록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대상 확대 등 경제적 지원과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홀로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신속히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성장일터를 신규로 운영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상담과 치유캠프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그룹 활동, 국제 교류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가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된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과 법안 하나하나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덕분에 성평등가족부가 보다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잘 잡아 주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덕분에 활기를 되찾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 한 해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국회와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가족부의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차관님이십니다.

최은주 기획조정실장님입니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님입니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님입니다.

최문선 대변인입니다.

김권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조민경 성평등정책관 겸 고용평등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김가로 안전인권정책관입니다.

윤세진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이윤아 가족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한정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최은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같음하고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폭력방지위 등 관련 위원회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중앙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중앙·지방의 성평등 정책 기반을 더욱 내실 있게 만들겠습니다.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모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직업 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여성이 새일센터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운영 기관도 80개소에서 91개소로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시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가칭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 노동부에서 이관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젠더폭력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신속히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현황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유통 방지 및 수사 요청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적

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지원센터의 인력과 기관도 확대하여 늘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제폭력 위협에서 피해자를 더욱 세심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교제폭력 처벌 근거 마련 등 입법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폭력예방교육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 개선 및 의무 미이행 기관 처분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 1월부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해 월 50만 원의 시설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 보호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 긴급 구조가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명예 회복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 강화 등 기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인 가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정책 수요에 발맞춰 프로그램 보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형태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효적인 가족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이주배경가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레인보우스쿨 등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진로·학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과 돌보미 처우 개선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4월 시행되는 자격제, 등록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시스템 준비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가족 친화적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고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야간 시간대 운영 및 전담 인력 배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부모가족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미혼 및 청년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금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1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회수 시스템도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사이버 아웃리치에 AI를 접목한 청소년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복지부,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성장일터 사업 신규 운영 등 취업·경제·교육·주거 지원을 한층 확대하고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도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등 청소년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 일상화로 미디어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치유크amp 확대 운영 등 치유 지원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국제 교류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지역 기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장께서 인사하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체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김삼화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입니다.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양평원에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원은 2026년도에도 성평등 교육과 문화 진흥을 이끌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성인지적 정책 실행 역량을 현장 중심 교육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춘 현업 적용도 높은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공무원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예방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교과 기획 학습자 중심을 강화하고 신종 성범죄 등 최신 현안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전문강사 및

고충상담원의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스마트러닝 기반의 맞춤형 폭력예방 및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와 교원 등 대상별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교육 몰입도를 높여겠습니다.

넷째,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국내외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성평등 가치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유관기관·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평원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성평등 교육과 문화 진흥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내실 있는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은 별도의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6년 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670개 피해지원시설 협력을 기반으로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진단 기반으로 교육 및 시설 컨설팅을 확대하여 여성폭력 피해지원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신종·복합 폭력피해 대응을 위해 협력체계 확대, 인신매매 등 내국인 피해자 보호절차 강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등 맞춤형 피해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의 이행 강화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는 AI 기반 디지털성범죄 대응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24시간 자동 탐지하고 해외 유관기관·대사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지역센터 간 삭제지원시스템 공동 활용, 온라인 신고창구 통합 운영으로 피해지원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적 기록의 보존과 가치 확산에 매진하겠습니다. 핵심 사료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온라인 공개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유네스코 등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인권과 평화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라는 진흥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은 2010년 설립 이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추어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성과 사회정서 등 미래 핵심역량을 고려한 활동모델을 확산하고 AI 기반 진로·체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시설 특화 프로그램과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계층 간의 체험활동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립청소년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체험활동과 돌봄의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활동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원 대상 청소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행력과 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활동진흥센터와 지역 청소년시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활동의 정책 전달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우수활동 모델을 발굴·보급하여 청소년활동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 지도인력의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해 직무 및 전문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활동시설 및 프로그램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증수련활동을 확산하여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효율적인 재무 운영과 선제적인 안전·보안 체계를 확립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

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한정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전국 630여 개 기관과 시설을 총괄 지원하며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더 나은 상담·보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울·불안,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 7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의료·교육·생활 지원 등 약 538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학교밖·가정밖 등 위기·취약 청소년 6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학업·자립·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3만 2000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과 가정에 복귀하거나 사회 진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우울·불안, 자살·자해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상담을 통해서 약 43만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기숙형 치유시설을 통해서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과 정서·행동 위기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0여 회 치유캠프를 운영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해 작년까지 약 4만 7000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배출하는 등 날로 심각하고 다양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관 내에 청소년AI·데이터센터를 신설해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서 AI 도입과 활용을 선도·촉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AI 및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앞으로도 최고의 상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4개의 가족센터가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역량 강화와 고위기 아동·청소년 가족 지원 등 가족센터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서비스 수행기관인 가족센터의 현장평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가족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금년 4월에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전달체계와 더불어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고품질 돌봄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 가족 친화 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 주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떤 가족도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편견 없는 포용적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가족의 일상에 닿는 행복 파트너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지현 안녕하십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지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을 위해 보여 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본 원이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되새기겠습니다.

이행원은 국내 유일의 양육비 이행 전문기관으로 지난 24년에 독립기관으로서 출범을 하였고 26년 2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공공성 중심의 책임경영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본 원은 지난해 전 직원이 힘을 합하고 뚝뚝 뭉쳐 양육비 이행금액 누적 2719억 원 그리고 양육비 이행을 47.9%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시행 첫해 7880여 명의 자녀들에게 총

77억 3000만 원 규모의 선지급금을 지원 결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선지급금 회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프로토콜을 완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 해결의 서비스를 넘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생존권이라는 숭고한 사명입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은 향후 2030년 양육비 이행률 55%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걱정하며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3분인데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난 3월 10일에 국무회의에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발표하셨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저도 그 사업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발표 이후에 제가 장관님 부처에다가 사업비 30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요청드렸는데 답변이 왔는데 굉장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30억에 대한 예산의 산출 근거가 달랑 두 줄이었습니다. 이 사업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지 정말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가 아직도 두 줄입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

○서명옥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 수 주 만에 예산전용으로 설계된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이 생리대 여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수요조사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장관님,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7월부터 해 가지고 본사업은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보통 본사업을 하실 때 그 예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의 본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언제 기획예산처에 올리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내년 사업은 주로 저희가 상반기까지 정리해서 ……

○서명옥 위원 늦어도 5월 말까지, 통상적으로 5월 20일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한 사업을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지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시범사업의 산출 근거도 없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가족부는 특색에 맞게, 사업은 디테일 있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내용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서 정말 염려가 많고요.

다음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저희가 도입된 부분에 대해……

○서명옥 위원 답변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시범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주민센터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생리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님, 예전에 2018년도에 현물로 주던 사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9년에 바우처로 바뀌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리고 신원 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수치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하고 품질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 때문에 이 사업을 바우처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년에 와 가지고 성평등가족부가 다시 옛날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리대의 주된 정책의 대상자는 청소년이 되겠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의 상태는 어떻다고 볼까요? 우리 다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그렇지요? 신체의 변화를 겪는 이 시기의 청소년에게 생리는 정말 타인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생리대를 꺼내야 한다면 주변에 여러 가지 노출이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지요. 또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사춘기 여성일수록 굉장히 위축감을 많이 느끼고 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이 10대들은 빈부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이입니다. 학교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당당하게 생리대를 사는 동안에 주민센터 자판기 앞에 서는 이 청소년의 입장과 연 생각해 보셨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명옥 위원 답변은 시간상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명옥 위원 그래서 생리대를 모두에게 주는 사업, 저는 세세한 부분은 몰라도 반대하지 않는데요. 장관님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범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금년에는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정량 수요조사라든지 이 방법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 연구용역 내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지고요 내년에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해서 저는 제대로 예산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리대가 근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공공사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리대가 우리나라에서 왜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지 그 부분도 구조적으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리대를 만드는 그 제조업체 또 통관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되는 식약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이인선 1분 더 주시고, 3분 안 쓰실 거지요?

○서명옥 위원 3분 안 쓰는 대신에 1분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괜찮습니다. 일단 1분 쓰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1분 쓰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가 공개라든지 유통단계가 어떤지 그리고 제조사의 담합이 없는지 이런저런 구조적인 부분도 정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꼼꼼히 짚어 주시길 가지고 정말 우리 혈세, 예산 낭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하시는 사업, 저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가격 문제도 저는 이 기회에 장관님께서 여러 부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도 좀 해결하셔서 가지고요, 이 시범사업을 지금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사업 설계하셔서 가지고 저는 내년에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부처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기존에 여자 청소년들에게 지급되고 있던 생리대 바우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외에 공공생리대를 도입하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기존 바우처가 중단되는 것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 12월 19일부터 지금 한 3월 초순까지 생리대 관련해서 유통구조와 금액 또 실제 수요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상 첫 번째 공론화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언론과 많은 유통업체, 환경 시민단체들과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우선 올해는 적은 금액이지만 먼저 시범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드렸던 자료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무회의 때 보고되었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리대 사업 논의의 의미 중의 하나는 기존에 여성들이 생애에 있어서 일정 시기에 거쳐 가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잘못 이해되었던 것들이 여성의 건강권의 한 문제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의가 큰 논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명옥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지금 시민단체의 장이 아닙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들, 수요자의 목소리들도 저희가 계속 청취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명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김윤 위원 장관님, 저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좀 여쭙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는 한 여성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가가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피해자는 가해자하고 동거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분리된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위협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치가 대단히 미온적이었고 보시면 그 이후에 위치추적기를 신고한 다음에 또다시 위치추적기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 신고를 했는데 2차 신고를 한 다음에야 1차 신고했던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경찰이 국과수에 수사 요청을 했고요.

2차 신고 이후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가해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가두라고 지휘 지시했는데 구리서에서 이 결정을 무시하고 국과수의 수사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조치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다음에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는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고 신고한 이후부터 한 달 반 사이에 위치추적기를 달 만큼 가해자가 적극적인 스토킹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일종의 스토킹 피해 보호조치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공백 상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바로 저희가 3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복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김윤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간 협력체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피해자의 이런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을 촉구했고 이후에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윤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다음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제는 경기경찰청에서 지시를 했는데 구리서에서 그 지시를 무시한 지점이, 그러면 지침이 없어서 이렇게 임의적인 구리서의 판단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서가 그걸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가 있는데 이게 1·2·3호는 사실상 적극적인 보호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3-2, 그러니까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 근처에 왔을 때 알람을 해 주거나 또는 인신구속을 하는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한데 이게 어떤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호조치의 공백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하셔서 피해 보호조치에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질의를 할까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위원장 이인선** 2차 질의 하겠습니까?

○**김윤 위원** 예, 그러면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한 바퀴 돌아보고 또 생각하시고요. 1분 만에 다 마칠 수 있으면 드리겠는데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장관님, 3월 8일이 있는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여성 주간이지요? 세계 여성 주간입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되는 IPU가 하는 세션에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너무 낮다. 유엔에 우리가 돈으로 분담하는 그런 분담국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9위, 10위쯤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그 정도로 유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우리 여성의 지위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지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한 것은 193개국 중의 181위, 2024년 건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것은 146개국 중의 94위.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에 비해서 성평등지수가 너무 낮은 제일 큰 이유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금 보고된 바로는 저희가 고용평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달희 위원** 고용평등이 아닙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남녀가 거의 동수로 고용되고 있는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성별 임금격차……

○이달희 위원 정책결정 과정에, 입안 과정에 여성이 적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신년보고회 할 때 우리가 국민들한테 공개될 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해서 답변하고 그러지요? 거기에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면 가뭇에 콩 나듯이 한두 명 여성이 있고 쪽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 여성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평등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선거가 올해 있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 지방의 인재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에 여성이…… 이번에 유엔에서 한 세션 중에 의회에 남녀 동수 보내자 이런 주제가 논의가 됐거든요. 남녀 동수는커녕 우리 전체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딱 봐도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고 기초단체장은 한 3% 겨우 넘고 군수는 전국에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보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사전에 이런 준비를 좀 해서 여성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유엔이나 이런 데에 가면 우리가 그 정도로 경제적인 부담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장국이나 거기 사무총장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혀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성평등가족부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 가니까 청년리더십 세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의원들이, 둘이 가 가지고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런 데는 다른 나라는 보니까 전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어떻게 하면 남녀 동수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각 나라에서 참여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금만 잔뜩 내고 성평등가족부의 그런 글로벌한 의식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참여가 낮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적으로도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개인 사비를 내서 저런 세션을 프랑스로 하고 함께하는 것 봤습니다.

위원장님, 3분 안 하고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1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예, 3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내의 현안도 그동안 성평등가족부가 좀 위축돼 있는 건 알지만 내년에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여성지위위원회 의장도 맡게 하고 사무총장도 맡게 하고…… 우리가 부담금은 왕창 내놓고 그런 역할들을, 세계 리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시민단체들도 저렇게 자비로 가게 하지 말고 가서 유엔에도 내놓은 돈 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는 각자 자기 나라의 세션을 다 가지고 그 나라 여성들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박람회처럼 장을 열어 놓고 있더라고요.

장관님도, 다른 데는 여성가족부나 여성 담당 장관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서도 원래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고 들었는데 내년 71차부터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우리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지수도 좀 높이고 세계 여성들을 리드하는 것을 BTS처럼 따라서 글로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공공 분야의 성별 대표성 부분은 저희 성평등가족부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분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은 함께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위원 조금 전에 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주희 위원입니다.

남양주 스토킹범죄로 생을 마감하신 피해자님 명복을 저는 꼭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땅히 누렸어야 할 따뜻한 봄날을 그 피해자분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제가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 대책을 논의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서 물론 골자이기는 하지만 여러 쟁점들을 던져 주셨는데요. 범죄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나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례를 활용해서 철저히 분석하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혹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자살 심리부검 또는 환자안전사고 사례 분석·조사 이런 것 좀 들어 보셨을까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들어 봤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런 사례 분석은 경찰이나 법원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그중에서도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정책연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 꼭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시고 그 사례에서도 특히나 유의미한 어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이런 사례들을 역추적해서 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물론 그 제도의 허점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만 있는 제도가 왜 활용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간 연결이 되지 못한 부실성의 쟁점을 꼭 발견하시고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저는 관점을 가해자에 대한 감시·관리체계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지만 그 인권 이전에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는, 한 해에 137명이 교제폭력으로 사망하는 이런 일은 정말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감시·관리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것을 법무부나 처벌 쪽에 맡기지 마시고 보호 영역 쪽에서 반드시 마련해

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제가 긴급하게 내일 여성단체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때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긴급 간담회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정책간담회, 충분히 어떤 형태의 제도로 이 사안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하니 그때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시간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리대 보급 문제 여러 쟁점도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우선 인식에 대한 것을 꼭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월경용품이 특수한 어떤 제품이 아니고 국민 절반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다 이 인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정책 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정말 보편적 복지, 여성의 건강권 문제다 이렇게 접근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점검하셔야 할 것이 이제 건강권 이 점에서, 최근에 홈플러스 99원 생리대 그리고 다이소 저가형 제품 출시됐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그런데 2017년에 일부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논란 발생한 후에 여성분들이 대체로 친환경, 유기농 고가 생리대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염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이 많아지는 건 그리고 여성들에게 무상으로 이것이 보급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물품이 위생과 건강에 직결된 물품인 만큼 안전성이 검증된 고품질 제품이 꼭 보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격 낮추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전성 검증을 동시에 병행해 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생리대 무료 보급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그리고 배치 장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도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고맙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초기부터 스토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 현장 지원단체와 함께 오랫동안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끝에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비로소 여성들이 스토킹으로부터 작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성평등가족부 부처 장관으로 온 다음에 살펴보니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으로만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정부 부처에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앞서서 젠더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바로 현장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이토록 피해자가 위기 속에서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도 왜 이렇게 수사기관이 포착해 내지 못했는가 그것을 되짚어 가면서 저희가 살펴보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결론은 수사기관 내지는 법무부, 법원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피해자 지원단체의 현장과 법원과 수사기관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국가에 위기신호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살해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던 중에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두 분의 젠더폭력 피해자가 신고 후에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관련해서는 사실 식약처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후에도 가격 인하 경쟁이 되는 가운데 생리대의 안전성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 해튼이 사건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영교 위원 알고 계셨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영교 위원 알고 계셨는데 뭐 하셨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

○서영교 위원 뒤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볼게요.

해튼이 사건 다 들어 보셨지요? 이것은 보건복지위 일인가요? 법사위 일인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우리 부처도 함께 고민해야…….

○서영교 위원 우리 부처 일 아십니까, 우리 부처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해튼이 사건 관련해서 영상이 되면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기가 태어난 지 4개월입니다. 손안에서 떨어질까 봐 힘든 그런 크기예요. 그 아이에게 온몸에 골절이 스물세 군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이 배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4개월 된 아기를 누가 그렇게 했나. 그 아기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는 입양된 아기였어요. 그 아기를 입양모가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정인이가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행안위원장으로 했었는데요. 또 같은 사건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보면서 저희 여가위에서 뭘 했는지 좀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영상 됩니까? 한번 눌러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4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던지고, 세상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지 않은 영상 중에 다른 영상으로는 아이를 밑에다 놓고 밟습니다, 발로. 머리를 밟습니다, 머리를. 그래서 아이가 사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친모·친부에게 최근에 학대당하고 치사당한, 아동학대치사…… 아니, 저것은 아동학대살인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도 저것을 보고 법사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3월 26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구형. 구형이 있는데 정인이 때는 아동학대치사였던 것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공소장이 변경됐고 아동학대살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심에는 무기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35년으로 깎이게 됩니다.

형을 많이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추적하셔야 돼요. 추적하셔야 되고 저런 일이 없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월 26일 날 선고가 있는, 구형이 있는데 저희가 국회의원 스물다섯 분의…… 저게 저에게 온 메시지예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운이가 해튼이의 본명인가 봐요. 저런 문자가……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탄원서를 써서 우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도 보냈습니다, 구형 때부터 제대로 해 주라고. 다행히 정인이 사건 이후에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저 아버지나 엄마가 변호사가 8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가 죽던 그날 성매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추적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엄마만 하고 있는 것이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양쪽이 같이 하게 하는……

여러분은 다른 일들도 있지만 아이 출생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려 주는 작업들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 성평등가족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같이 카톡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집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이 성평등가족위의 일인가요, 아닌가요? 일인가요, 아닌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될 저희 부처 일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방을 위해서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가정 내에서 여성의 아동에 대한 학대 부분은 저는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바라보고요. 가정폭력 예방과 이런 사건 발생 시에 전문기관 연계가 되도록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여성이 어쨌든 본인이 10개월간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엄마가 출산 직후에 이렇게 아이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된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좀, 그런 것에 대한 사례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는 처벌이에요. 복지위는 어린이집과 복지 정도예요. 그러면 아이와 엄마와 그 가족과 이것은 성평등가족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담당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예방이고, 없어요. 없으면 장관님이, 차관님도 그렇고 이 정부에서는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할 곳이 없어요. 없고 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처벌, 복지, 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아기 출생과 그 출생을 행복하게 해야 하고, 그 작업이 없다면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생겼지만 언론이라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지시하셔서요 그렇게 해서 죽어 가는 아기가 몇 명인지…… 제가 몇 년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500여 명이 죽어 갔대요. 그리고 아이는 똑같이 살해됐는데 부모의 처벌이 몇 년 안 돼요. 아빠는 방조 정도로 빠져나가요, 반성문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진짜 예방은 이런 일이 없게 하는 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데 힘들잖아요, 우리도 해 봐서. 아빠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한, 어린이집으로 하지만 저는 이게 복지위의 일이 아니고 예방의 일이 아니라 성평등가족위가 행복하게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영교 위원 저희는 현장도 좀 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온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가 하늘에서는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파서…… 그런데 저에게 저 문자를 보내고 저것을 도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아기들의 부모예요.

그다음에 국회 청원이 들어왔는데 17살짜리가 청원을 넣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7만 8000명인가가 청원을 했어요. 여러분, 국회 청원이요 그냥 서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증에다 온갖 것을 다 넣어야지 청원이 되거든요. 7만 6000명이 냈고 저 아이의 부모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저 문제를 찾아냈는데, 처벌을 확실하게 하고 아이들을 예쁘게 기르게 하자라고 하는 그것은 구글폼으로 약 10만 명이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 정도는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도 찾아보시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질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 방으로나 또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영장에서 초중고 학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을 성폭력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중의 3명이 14살 아래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그러니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소년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재범률, 청소년 보호와 사회 안전 사이에서의 균형까지 많은 것들이 아주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성평등부에서도 업무보고에 촉법소년 문제,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2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인선 위원장, 김한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3월 18일 날 포럼을 개최하셨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연희 위원 장관님, 혹시 그때 포럼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포럼의 참석자분들은 부경대 법……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주시는 발제자 한 분이 계셨고요. 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님 그리고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그날 포럼과 관련한, 행사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나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교수 변호사 경찰 이런 분들 참여를 하셨던데, 대부분 나름 전문가와 학자들 위주로 구성해서 포럼을 진행하셨는데 포럼 하는데, 쟁점 정리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목소리를 듣는데 이게 피해자의 목소리가 없어요. 피해 당사자 아니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숙의나 공론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진 분이 없었어요. 매일 청소년과 마주하면서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촉법소년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분들이 와야 당연히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텐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성이 좀 배제되지 않았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청소년을 단순히 처벌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인가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교화하고 재사회화할 것인가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그날 포럼에는 교화 전문가, 소년보호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화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특히나 찬반의 쟁점이 국민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사안인데 성평등부에서 공론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론화라는 것은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고 첫 번째, 의제의 설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적인 운영 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찬반 양측 그리고 직접 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참여한 사람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숙

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공론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평등부가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한규 추가질의는 안 하시는 건가요?

○이연희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규 1분 더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하고…… 이게 숙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비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앞으로 포럼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시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을 할 때 이런 공론화 추진의 원칙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들, 피해 당사자나 관련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또 전문가들 불러다가 포럼 몇 번 하고 나서 성평등부가 결론을 정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론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론화인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성평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의 기본 절차나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고리 5호·6호 공론화 과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거쳐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절차를 더 연구해 가지고 제대로 공론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작업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사회적 공론화는 결코 저희 성평등부처 안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온 사회가, 온 나라가 촉법소년만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 전체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포럼은 아무래도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조계와 학계, 경찰, 청소년계 등에서 참석하셨는데 2차 포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된, 교화 전문가와 현장의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관련 부처 경찰, 법무부, 복지부 등으로부터 두 분 정도씩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사범연수원 석좌교수 이신 노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회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논의 과정 중에 비공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공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현재 신고리 5·6호 원전 공론화 작업을 보면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를 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하고 토론했던 그런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민참여단을 규모 있게 구성을 해서 모든 의견들을 가감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구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기존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에 참여했던 분을 또 저희 숙의·소통위원장으로 모시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짧은 시간관계상 200분 정도의 시민숙의단을 모집하고 또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도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공론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장관님, 그것 4월까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충분히 국민 의견 수렴해서 숙의 과정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시한에 쫓겨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대통령 지시인데, 두 달 안에 하라고……

대통령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이연희 위원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충분하게 국민 의견 수렴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규 감사합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해가 떠 있을 때 끝내려면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안녕하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안녕하세요?

○서범수 위원 오랜만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바꿔 줘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2026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 국고보조 사업이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어디어디 선정됐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선정된 곳은……

○서범수 위원 정의기억연대, 극단 진동, 문화유목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정의기억연대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기억연대, 그 전신인 정대협. 윤미향 전 대표 관계 아시지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 전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서범수 위원 그 전신은 정대협 그다음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대표, 윤미향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후원금 횡령해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정대협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해서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정대협하고 정의기억연대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다른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른 단체라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PT 한번 띄워 봅시다.

‘2024년 11월 14일 정의기억연대 입장문에서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와 활동가 1인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인정을 했어요. 왜 정의기억연대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까요, 정대협하고 관계없는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마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저희도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이 별개의 단체인데……

○서범수 위원 별개의 단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왜 전신이라는 표현을 쓰나라고 물어봤더니 정대협을 통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와 전 세계로 알렸던 활동을……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 정의기억연대가 ‘국고보조금 반납을 바로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인정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의기억연대하고 정대협하고의 관계, 정대협 관계자들이 전부 다 정의기억연대 임원들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동질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예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예? 아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 PT.

정의기억연대 성찰과비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를 하면서, 21년 2월 3일입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는 향후 정의연은 국가 및 지방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내외 시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안 받는대요. ‘이에 성찰과비전위원회는 2018년 통합 결정에 따라 정대협을 해소하고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명실상부하게 재단법인 정의연으로 통합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다음, 정의기억연대 1716차 수요집회 발언, 25년 9월 3일입니다.

이나영 위원장이 ‘스스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오로지 국내외 시민들의 선한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는 단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변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국고보조금을 탑니다. 이것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요? 안 한다면,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앞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받지 않겠습니다. 지원금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민간단체로서

시민들의 선한 기부금으로만 운영을 할 겁니다’ 해 놓고 이제 까먹었다 이거지요.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이제야 국민들이 다 까먹었겠지. 모르겠지’ 하고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또 여가부는 ‘옳다구나’ 하면서 또 받아 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띄워 주신 내용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정의기억연대가 운영과 관련된 국가 보조금은 받지 않고 아마 일본군위안부연구소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은 1996년의 유엔 보고서와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범수 위원 장관님, 결론 냅시다. 이것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의기억연대가 신청을 하고 선정을 했어요.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자기네들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신청 안 하고 받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모를까? 국민들이 모르겠지. 까먹었겠지’ 하면서 신청을 해서 받아 냈고 또 여가부에서는, 여가부가 아니지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아무런 거르는 절차 없이 준 거예요. 이것 대국민 사기극 아니예요?

다시 검토하십시오. 재검토하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이 부분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서범수 위원 왜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서범수 위원 아니, 법적인 자문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정의기억연대라는 데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단체인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 받겠다’ 그리고 비전위원회에서 ‘나 안 받을 거야’라고 국민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아무런 그거 없이 줘 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국민 사기극이지.

재검토하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설명하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렇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다니까요.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정대협은 사단법인이고 정의기억연대는 재단법인이어서 설립 형태와 법적 성격이 상이한 단체입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협력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뭐라 하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왜 이걸 하느냐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 부분은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그걸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확인을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김한규 서범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정의기억연대가 순수한 후원금으로만 1년에 굉장히 큰……

○서범수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는 국고보조금 받았느냐? 신청을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에……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요. 국고보조금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한규 장관님 답변 취지는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이주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주희 위원 장관님 지금 말씀을 좀 더 하실……

○서범수 위원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주희 위원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논쟁적인 말씀을 하셨고 사실 팩트 확인도 필요하고 또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의 절차……

○서범수 위원 제가 그것은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팩트만 이야기한 거예요. 국고보조……

○이주희 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발언 중입니다.

통상의 절차에 부합하게……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저한테 발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한규 의사진행발언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 예.

그래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통 장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은 굉장히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끊지 마시고 짧게나마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장관님, 다 했지요?

○위원장대리 김한규 제 생각에는……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규 잠시만요.

○서범수 위원 장관님, 말씀 다 했지요?

○위원장대리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규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해 가지고 또 장관님이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질문하면 되니까요.

다음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빠뜨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꼭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청소년 자살 문제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일을 해 주십사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3년째 1위다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타 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1.7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 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임미애 위원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3년도 한 해에 372명 이에 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보통 214명만 다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아이들 대 상으로만 통계에서 자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그 외 158명의 학교 밖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어디에서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최근 5년간 청소년상담1388 상담 실적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외롭고 위기 상 황에 처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화를 통한 상담도 하고요 SNS,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해요. 온라인 건을 보니까 43만 1000건이네요. 그런데 이 상담에 대응하는 상담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이제 16명이 늘었긴 하지만 그 전까지 99명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5교대로 쉴 틈 없이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서 평균 응답률이 82%밖에 안 되고요. 대기 시간이 18분이 넘는대요. 요즘 관공서에서는 다음 화면으로 홈페이지가 넘어가는 데 로딩 시간이 5초만 걸려도 이것 래그(lag) 걸렸다고 항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전화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18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좀 너무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는 27만 9000명인데요. 그런데 전화 상담 인력의 경우 전화 상담 인력이 없어요. 이것 알고 계셨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김한규 간사, 이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보니까 전담인력이 없어 가지고 대면 상담이나 행정업무를 보던 직원이 쫓아와서 전화를 받는 방식이에요. 이러면 되겠나, 이것 이런 식 으로 계속 이렇게 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 시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인력 충원을 위해서 노 력했으나 어렵게 되었고 올해는 꼭 이 부분을 충원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기다리 는 일 없이 바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하셔야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청소년들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심층취재를 했던 기사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간담회를 하면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기자들이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이것을 긴 시간 집중취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 봤어요. 한번 보세요.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정신 및 행동장애 현황을 보면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0~19세까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가 21년도 약 26만 명에서요 25년도에 42만 5000명으로 2배가량 늘었어요. 중고등학생 환자 수도 22만 명을 넘어섰고요.

OECD 보고서에 보면 자살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신건강 치료환경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핀란드 보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자살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국가 슬로건으로 청소년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고 시행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생이라고 예산 쏟아붓는 게 100조가 넘어요. 그것에 비한다면 청소년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는 예산이 700억 정도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해의 업무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작년 제가 취임한 이후로 청소년 자살·자해 부분에는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정부 회의는 물론이고 직접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동안 적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중위소득 150% 이하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 치료비 등 지원 사업을 예산에 넣고자 했었으나 그것이 불발되었고, 올해는 현장과 상담한 결과 심리상담을 넘어선 정신과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은 재정 당국을 설득해서 꼭 내년도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장철민 위원이신데 오래 기다리셨고요 많이 바쁘신데, 좋은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철민 위원** 감사합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업무보고 처음에도 중앙·지역 정책 연계에 대한 부분

도 아마 그런 고려가 있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로 정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각한 형태의 성평등·가족 정책의 후퇴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관련 정책이 후퇴되었는지 조사 같은 것을 따로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작년 10월 말 정도에 17개 시도 여성 국장들과 간담회를, 회의를 하면서 각 시도별로 지난 3년간 여성정책의 후퇴, 정책과명이나 국명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실제로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획조정실에 성인지정책담당관, 국장이 있다가 여성청소년가족과가 났다가 이후에는 교육정책전략국 산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 역할을 기조실에서, 부처든 지자체들도 기조실이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정책 수행을 해 나갈 텐데 이게 처음에는 복지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교육정책 하위 개념으로 가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이상한 주소로 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직체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들이나 예산 삭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성폭력 피해자 구조비, 치료회복 의료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도 2023년, 24년도 비교했을 때 2억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고 여성 취창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75% 이상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세 분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평등정책의 후퇴, 이런 조직체계의 후퇴들이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장회의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국장도 사실은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번의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정부 체계들이 다 재검토나 정부 체계의 정비들이 이루어질 텐데, 어떤 일들을 개선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되어야 당연히 지방자치 차원의 개선들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중앙·지역 정책 연계 강화에 대한 부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기능 신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하려도 사실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들이 있어야 개선 권고를 하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한다는 게 지자체 차원에 대한 개선 권고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조사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차원의 조사를 확실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게 중앙정부랑 국회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당연히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나 성평등·가족 정책은 지역 단위에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전달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 거버넌스 구조가 완전히 확립돼야 사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희 대전에서도, 지난해 청문회 할 때도, 국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넥스트클럽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시스템적인 정비, 그 완성이 사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중앙과 지역이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완결성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 좀 특별하게 다시 챙겨 주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도 성평등정책 채널을 복원하면서 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성장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밀고 있는데, 결국 지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저는 지방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모였던 각 17개 시도의 담당 국장들이 의견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지방정부의 성평등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장관님, 저는 질의의 차원이라기보다 국민주권정부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장관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이 법이 처리될 때까지 굉장히, 십수 년간의 국회의 노력도 있었고 노동계의 노력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시작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복지부 소관이나 수많은 사회서비스 종사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사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돌봄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정춘생 위원 그 근거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현장에 지침을 수립하고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형태 등 핵심 노동조건을 사

실상 결정해 왔기 때문에 원청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의 입장과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노총과 공공연대노조 교섭 요구 관련해서 저희가 폭넓게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협의체는 어디서 구성하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관련 부처들이 함께, 정확한 그것은 아직 저희가 보고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미처 검토가 안 돼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 부문은 해당 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노동부 주관으로 하든 해서 TF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주권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다음은 교제폭력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교제폭력 처벌 관련된 법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을 거예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있고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도 있고 교제폭력처벌법, 별도의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하는 안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이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제폭력 처벌의 가장 큰 핵심은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거제 살인사건도 그렇고요 동탄 살인사건도 그렇고요, 열한 번 신고해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동탄은 아홉 번 신고를 해도 보호를 받지 못했어. 그때마다 처벌불원서를 써 줬어요. 처벌불원서가 굉장히 악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교제폭력처벌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처벌법으로만 했을 때 폭행·협박으로 인한 이런 부분, 명예훼손 이런 부분은 반의사불벌 적용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틈새가 없게, 사각지대가 없게 법을 꼼꼼히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직도 저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부처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입장을 들어 보면 하루빨리 교제폭력, 스토킹 관련 법이 우선 제정이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를 공백 없이 보호하고 이후에 조금 더 필요한 논의가 있으면 그때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

부처는 입장을 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교제폭력,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이고 그 부분은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성평등가족부는 좀 소극적입니다.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 대처가 아니라 예방, 사전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런데 사후 대처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는 축법이야’, 이것 많이 들으셨지요? 드라마에서도 듣고 영화에서 듣고. 이 제도가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관님께서 모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축법이니 때려 보라’ 같은 얘기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사건들도 생긴 거지요.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축법소년이 어젠다가 안 될 수 있었냐?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축법소년 송치 인원이 18.6% 늘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다음에는 보시면 총인구 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축법소년 송치는 늘고 있지요. 사회적 문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령을 하향해야 되느냐, 이거 통계만 보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5년간 만 13세 축법소년 송치 인원이, 전체 축법소년의 증가 비율은 18% 좀 넘었는데 13세 축법소년 송치 인원의 66.4%가 5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축법소년이 는 것의 3배가 넘는 거지요.

거기다가 만 13세에 집중되어 있는 축법소년을 보면 50% 넘는, 50% 정도, 절반이 다 13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를 안 보신 건지 공부를 안 하신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봐 주세요.

축법소년의 성폭력 현황을 보겠습니다. 5년 사이에 86% 늘었는데 이 중에서 739건 중에서 47%가 만 13세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조금 길게 답변드릴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여론에서는 81%가 하향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께서 참다 못해 2월 말 국무회의에서 2개월 안에 결과를 내라고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가 예전에 인터뷰 하신 거를 봤었는데 아직 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화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

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가 무엇을 했냐를 봤더니 아무것도 더 추가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화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안 되고 이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것도 강조가 안 되면 도대체 성평등가족부는 사후에 항상 일을 처리하는 건지……

저는 법을 2024년도에 냈습니다. 13세로 하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조금 이따가 또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사후 대처에 대한 부분 또 있습니다.

PPT 주세요.

미성년 성범죄 관련해서 최근에 MBC에서 보도된 부분인데 성범죄자 중 강력 또는 교화 가능성 없거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판사가 그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성년 시절에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성인이 돼서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례지요.

미성년자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 번 이 사건들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에 성평등가족부는 대안을 마련할 건지,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후 대처.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한 사법3법으로 재판소원까지 가능해진 거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한지아 위원 그러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재판소원 청구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가처분제도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현재 결정 전까지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들이 걱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은 있는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재판소원제, 법외곡죄가 낳은 부작용, 성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보고,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의견을 개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평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의 폐지를 앞뒀기 때문에 일을 여태까지 못 했다고 하지만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사전에 하는 적극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촉법이니 때려 보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저도 부처 장관으로 오기 전에 촉법소년 사건과 범죄소년 사건, 피해자 사건도 물론 많이 했고 다만 성폭력 가해자 사건은 제가 하지 않지만 촉법소년에 한해서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만나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촉법소년 하향과 관련된 많은 논의와 국민 여론이

형성돼 있었지만 막상 정말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나 때려 봐라, 나 때려도 난 아무 일도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공론화를 이끄는 부처의 장으로서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촉법소년도 촉법소년이 때려 봐라 해서 때렸을 때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우리보다 더 낮은 영국보다 우리는 10세에서 14세까지의 촉법소년은 만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영상의 소년은 정말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 연령 하향이 필요한지 여부 또 교화가 어느 정도, 교정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소년의 비행을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막아 왔는지 그리고 재비행을 막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동안에 연령 하향 논의만 있었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고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회가 숙고해 보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가 어제 마침 서울가정법원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직접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소년부 관사님께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촉법소년의 실제 저연령화, 흉포화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대로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통해서 잘 알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의 할 일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저희는 다양한 이런 의견들을, 쟁점을 모으고 국민들께서 숙고하실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잘 마련하는 것이 우리 부처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한지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데 조금 직접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에 대한 어떠한 이유들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지아 위원 촉법소년이 13세에 66%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모든 촉법소년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자료를 다시 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시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인식개선사업 같은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안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평등가족부는 그것 관련된 사업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부터 10까지 다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따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장님, 저희가 이 사업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지아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촉법소년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뭔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부에서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질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효능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조금 구체적으로 홍보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뭘 하고 있는, 오늘 질의를 잘 보셨잖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서 저희 산하기관의 전달 체계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에 240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저희가 상담하고 교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선 산하기관장님 다 배석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거 마련해 주시고요.

전진숙 위원님 오늘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순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쯤 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복구를 전진숙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아이들은 청소년이라고 불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동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동시설에 있고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시설에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똑같은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자립준비청소년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립을 하고 싶어도 자립정착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은 최대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보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성평등가족부의 가정 밖 청소년은 별도 지급 관련 부분들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평등가족부가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건 알고 있으나 각각 머무는 시설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평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복지부의 수준에 준하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안을 공식 지침으로 명시해서 내린다면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근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요구도 굉장히 크고……

○전진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요구만큼이나 저희 의지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꼭 저희가 예산에 넣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예, 장관님 믿겠습니다.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하겠다고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19개 부처 중의 9개 부처가 지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처인 행안부에도 없다고 하는 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2018년 이후에 지금 거의 증가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18년이었다면 세월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이게 올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금 행안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거의 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위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조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점검이 되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행안부 말고 또 어떤 부처가 그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15개 부처, 청이어서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부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기획예산처 등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부처들인데 이름을 말씀드리면 재정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행안부·보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가유산청 등등입니다.

○전진숙 위원 예, 됐습니다. 장관님 오서 가지고 7개월 만에 어쨌든 그런 성과를 내고 있어서 잘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어떤 측면에서 지원을 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하면 한부모가족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반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였을 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교육활동비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모두 다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한부모가족이 복지 혜택을 가지려고 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뭐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회가 가하고 있는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증명서를 떼서 해야만 내가 복지 혜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예.

○전진숙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 서비스에는 이미 보육료,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나 교육부 소관의 교육급여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제출 서류를 생략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처리하는 방식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실지 두 가지 같이 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다문화가족 중위소득 100%와 한부모가족의 65% 기준이 어떤 적절한 차이하에, 그렇게 소득기준이 세워진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제도 보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게 될 경우에 다른 취약계층 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부처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서 부분은 말씀해 주신 타 부처 상황을 살펴보고 저희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진숙 위원**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항상 공무원께서 검토하시겠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이미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재정적으로 되게 열악한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계신 성평등위원들께서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원민경 장관님 와 계실 때 좀 더 진일보된 정책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배 위원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하시고 감사들도 질문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내내 위축되어 있었던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성평등가족부로서 주체적으로 논의와 정책을 이끌고 있는 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7일이었지요, 광화문에서 있었던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도 장관님께서 오셨었는데 감회가 새로웠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장관님도 현장에서 들으셨겠지만, 특히 부처의 오늘 발표 자료에도 있지만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매우 뜨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를 30년간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내어 준 적이 없지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제도를 정말 잘 설계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 적용 대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의 성별임금공시제와는 분명히 달라야 될 거고요. 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 부분은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서 실효

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여성노동자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고 또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여성취업자 수가 절반을 넘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이 대기업에만 한정되면 정작 격차가 심한 현장은 완전히 제도 바깥에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단계적 도입 확대’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구체적 로드맵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주무 부처입니다.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단순한 정보공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그 격차를 줄이는 정책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박홍배 위원 당연한 얘기지만 공시에 그쳐서는 안 되지요. 공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고요.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되고 격차가 확인이 되면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해야 되고 또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책임을 묻는 구조가 반드시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순 정보공개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동자들과의 협의 절차입니다. 모든 제도가 당사자의 참여 없이는 현장에서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성실하게 작성했는지 이 부분 반드시 자체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논의 단계를 넘어서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 또는 현재 마련되어 있으신 계획을 의원 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률개정안 준비 중이고요,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생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제가 지난해 장관님 인사 청문회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짚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카드사별로 이용 가능 매장이 다르다라는 불편 사항이었는데, 여러 질의 사항 중에 오늘 보고자료에 따르면 신청 시기별로 달랐던 지원 금액 이 부분은 올해부터 개선을 하신 것 같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박홍배 위원 그런데 구매처 수가 늘었다는 설명은 있기는 한데 카드사별 이용 가능 격차가 얼마나 해소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 6개의 카드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입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카드사, 유통점과 계속 협의해서 그 구입처를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하면 저

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현황을 구체적으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평등가족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생리대 드림사업, 이 사업 내용 중의 하나가 보니까 관공서 같은 공공시설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2018년에 서울시가 유사한 사업을 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박홍배 위원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 사업이 당시에 낮은 이용률 그리고 관리 문제로 중단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일부 기관들이 자체 예산으로 자판기를 계속 운영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운영 여부와 관리 수준이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위원장 이인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이런 운영 격차들을 잘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기존에 진행된 내용들까지 저희가 다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국회를 보니까 국회는 이미 공공생리대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1층에 보니까 자판기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박홍배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연히 현장에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요인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생리용품과 같은 필수재의 경우 가격 부담을 국민들이 매우 크게 느끼고 계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관계 부처들과 협업해서 가지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잘 점검해서 부족한 것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제 양당 간사님이 남아 있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이게 손에 왔는데 우리 행정실장하고 수석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18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 중 우리 성평등가족위 상임위가 의안 처리율이 2위입니다, 2위. 18개 상임위 중에서 의안 처리율이, 법안 처리율이 2위인 건 굉장히 잘하신 거니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양당 간사님께서 소위 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고.

검직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요, 전체 18개 위원회 중에서 2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양당 간사님께서 질의와 함께, 소관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또 우리가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열겠습니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진행

이 되고 하면서 큰 현안이 없으면 여기까지 기본 보고를 받는……

물론 원포인트로 문제가 생기면 현안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양당 간사님께서는 하고 싶은 질의와 함께 소회를 말씀하시고 남아 있는 위원님들도 우리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것 1분 이내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간사님……

김윤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할 게 남아 있습니까?

○**김윤 위원**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잠깐 김윤 위원님 1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당 간사님의……

○**김한규 위원** 간사 하고 다 질의 3분씩 더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질의는 하고 다시 돌고……

○**위원장 이인선** 예, 먼저 질의부터 하고요.

○**김한규 위원** 저는 2등이라니까 더 열어서 1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1등만 기억하는 사회인데 저희가 어떻게 2등으로 끝내나 싶어서 상임위를 더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박홍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생리용품 구매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서 저도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데 신용카드 종류가 다섯 가지인데, BC카드는 생리용품 구매처가 되게 많은데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GS25, CU 편의점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리 바우처를 다 어린 친구들한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 갖고 그걸로 사게 하고 또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되게 제한 조건들이 많아요. 무료배송 상품만 가능하다, 한 번에 한 가지 상품만 주문할 수 있다 등등이 있어서 이게 초반에는 통합바우처를 카드에다가 다 심는 게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세상은 좀 바뀐 것 같다, 되게 빨리 바뀌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자동결제해 갖고 물품이 배송되는 이런 식의 서비스들도 많은데 이게 적절한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사항이 2026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였던 것 같은데, 서범수 위원님이 보실 때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먼저 서범수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발언을 인용하시면서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니 위안부 연구소의 사업 예산이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 예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은 정정하고 일반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 예산인 경우에는 보조금법과 무관하다고 하는 판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 또 서범수 위원님 지역구지요, 안 계신데. 여기 빌라에서 일가족 다섯 분이 사망한 채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조은희 위원 행안소위 가셨어요.

○김한규 위원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족은 아버지와 미취학 자녀 4명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었던데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이면 또 성평등가족부 업무가 되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혹시 이 가족이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 지원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혹시 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한부모가족이 되신 사유가 작년 연말에, 언론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배우자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되면서 연결이 바로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한부모가족의 사유가, 특히 수형 생활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지속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이 사안을 보고 사실은 6개월 이상 수감을 지원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법에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지요? 법에 있는 게 아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침의 규정이어서 저희가 바꿔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왜 지침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자동지급 전환을 지시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청주의를 넘어서서, 이 울주 사건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하는 많은 경우가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내지는 알더라도 또 다른 낙인효과 때문에 신청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부 부처가 복지과 관련된 예산을 신청주의에서 바꾸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배우자가 수감, 한부모가 수감 중이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수감할 때 수감자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거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왜냐하면 수감되면 더 이상 신청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 다른 배우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한부모가족 관련해서는 낙인효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1분만 주시면……

○위원장 이인선 예, 1분 쓰십시오.

○김한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려운 건데요. 신청주의를 유지하더라도 홍보

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평등가족위의 단골 이슈 중의 하나인데 여성사전시관 사업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예산 현황을 계속 저희가 국감이라든지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올 1월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대책에 여기 부지가 포함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 부지가 저희 소유가 아니라 국조실 소유여서 저희가 더 큰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고 지금 대체부지를……

○김한규 위원 아니, 설계비 14억 이미 투입이 된 거잖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런 것들 감안해서 부처에서, 재정 당국에서 저희 대체부지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 올해 사업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11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대체부지 마련이 안 되면 이것 다 불용될 수 있어요.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난 몇 년 동안 국감에서 계속 성평등가족위에서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 마련을 신속하게 하시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든 써 갖고 사업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금 저희가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으니 곧 위원님께도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평등가족위를 안 열 것처럼 하셨는데 만약에 대체부지 마련 못 하고 하면 저희 다시 돌아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내가 그냥 가정을 했는데 아무튼……

조은희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이 촉법소년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좀 간단히 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한 달 남았다 그러셨는데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하는 것은 논쟁점을 정리하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조은희 위원 짧게 좀 대답하세요. 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요 장관님, 촉법소년의 실제 입건자 수나 소년보호처분 데이터 여가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성평등가족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없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청소년정책관에 데이터 요구했더니 데이터 없으니 사법연감 참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있다고 그러세요? 가족부가 청소년회복시설 운영하면서 보호처분 1호 대상자가 평소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있

다고 하시는 것 너무하지 않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경찰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데 왜 직원들이 없다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요 직접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 법무부, 대법원에까지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부처 장악을 못 하시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력범죄 만 12세 입건자 비중이 10년 전 만 13세의 비중과 비슷한 10% 가깝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강력범죄가 무엇인지……

○조은희 위원 또 실질적 구속에 해당하는 만 12세의 보호처분 인원은 10년 새에 1078%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연령 하향 기준의 임계점 뭘 삼아야 됩니까? 10% 비중이 넘으면 14세에서 13세, 13세에서 12세, 12세에 11세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까?

또 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제가 또 다른 것 질의해야 돼서, 재범방지 실태를 좀 여쭙겠습니다.

PPT 3번이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년범의 재범률은, 장관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예요. 성인보다 2배나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촉법소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연령별로 해결해야 돼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저는 더더욱 저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은희 위원 개입해서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많은……

○조은희 위원 ‘개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단순 개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은희 위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 소년의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자, 보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기존에는 옆에 있을 어른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요 장관님,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쓰지 마세요.

지금 보호자 위탁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법원의 1호 처분받은 아이들 몇 명이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한 1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휴, 왜 그러세요. 2만 명이 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 없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1호 처분이 2만 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은희 위원 한 달 만에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전국의 18개 회복지원시설의 총 입소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회복지원시설 입소정원이 삼백……

○조은희 위원 180명입니다. 그러니까 처분만 있고요 시설 부족으로 보호 관리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실태를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뭘 하셔야지, 위원들이 질문하면 길게 답변하시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시고 그래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바로 그 부분이 저희가……

○조은희 위원 다음 질문 더 드릴게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소년을 보호할 환경이……

○조은희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톱 좀 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소년을 보호할 환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조은희 위원 스톱하셨어요? 제가 열 좀 식히고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넣어 주세요.

○조은희 위원 2분입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지요?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조은희 위원 그때 여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 그때 여가부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장경태 의원 건 문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는 정신적 고통을 명백한 2차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송치 나오니까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명도 안 했어요. 굉장히 판박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예, 1분.

○조은희 위원 장 의원은 수심위 과정에서 사상 첫 직접 진술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는 등 극심한 압박을 했습니다. 이것 2차 피해 아닙니까? 설마 성평등가족부는 여당 출신 의원이니까 2차 피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일반 성폭력 피해자 대상 개최율이 5%도 안 되는 수심위가 민주당, 여당 현직 의원한테 사상 첫 직접 진술권까지 주었습니다. 영상 포렌식과 증거 검증이 끝났는데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과 대질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성평등가족부는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눈치 보고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원순 사태를 재발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대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하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부터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지 않고……

○조은희 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는 윤석열 대선후보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 기억이 다른지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발언은 간단하게 하시고요. 말씀하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비행소년을 재비행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원의 소년부 판사님들은 이 소년을 회복지원시설로 보내야 되고 이 소년에게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데 국가예산이 없어서 그런 시설로 보낼 수가 없다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소년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만이 아니라 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은 장관의 저런 답변 태도에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박원순 성폭력 피해 사건 때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못하고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여가위는 집권여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가위가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다 해서 그때부터 여성가족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흘러온 겁니다. 반성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저렇게 또박또박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고요.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촉법소년 보호를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성폭력 피해범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잘 보시고 특별히 편을 들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선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양쪽의 간사님은 했고 김윤 위원님이 1분만 쓰시면, 왜냐하면 6시부터 지금……

양성평등진흥원장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규 위원** 이주희 위원님도 간단하게, 두 분만……

○**위원장 이인선** 예, 그래요 그러면.

김윤 위원님부터……

○**이주희 위원**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지아 위원** 저희도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이 하시는데 야당은……

○**위원장 이인선** 일단 김윤 위원님부터 하시고……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이 바쁘시대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인선** 아니, 저는 괜찮은데 양성평등원에서 무슨 영화 상영이 있지요, 6시부터? 기관장은 나가시고……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면 기관장은 나가는 예외에 간사님이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이인선** 예, 동의해 주시면 기관장 먼저 나가시게 하지요.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장관님,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정말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높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고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성평등가족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지점이 의문입니다.

하나는 성평등가족부가 완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필요할 텐데 그게 연계가 잘될지 의문, 두 번째는 자살의 고위험군이 그냥 위기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정폭력, 성폭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의 고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대상자들을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 내에 그런 전체의 대상자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답변해 주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약물치료나 입원 치료 등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이나 자살예방센터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저희 성평등가족부의 상담 이후에 꼭 필요한 자살예방센터나 다른 의료……

○**김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가 자살의 고위험군이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김윤 위원**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의료 지원을……

○김윤 위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바로……

○김윤 위원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청 소년위기대응센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 한 의료심리 지원으로 정신의학과와 상담이 다 모두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에 또 그 구체적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 위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짧게……

○이달희 위원 3분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추가질문은……

○위원장 이인선 질문할 게 있습니까, 3분?

○이달희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선 하세요, 그러면.

○이달희 위원 장관님, 변호사시니까 성폭행이나 성추행·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입은 여 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받는지 아시지요? 그 재판 과정에서 일심, 이심, 삼심 대법원 판 결까지 나면 그 피해자들이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해자가 삼심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 결과가 다 났으니까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재판소원제도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달희 위원 이 재판소원제도에 벌써 지금 12일 만에 접수 건수가 380건쯤 되는데요. 여기에 성범죄자들도 신청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호텔에서 성추행한 혐 의로 500만 원 받은 가해자가 이런 재판소원을 냅니다.

그리고 N번방의 조주빈이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지금은 삭제됐습니 다 마는 ‘아, 나도 이제 드디어 구제받을 수…… 재판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은 또 재판소원까지 끌려가서 2차 가해를 이 입법에 의해서 재판 과정이 길게 지연되면서 또 겪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해 보셨으니까 그 피 해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제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 이 필요합니다. 법이 이렇게 통과됐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게 아닙니다. 개정안도 내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입법을 잘못해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런 2차, 3차 더 참혹 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혹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는 어떤 대처를 하 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도적인 장치와 또 입법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시민단체하고 이런 부분 다 협의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재판소원제, 우리하고 상관 없다? 당장 보십시오. 당장 이런 성범죄자들까지 재판소원을 마구 내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이 가서 또 그 재판에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말씀해 보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고 최종적으로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종전 재판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더 적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조주빈 사건은 제가 직접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어서 조주빈과 같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제도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법률 지원 등 추가적인 제도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달희 위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겪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난 건데도 성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또 하면 그 기간에 겪는, 2차가 아니고 이것은 입법이 주는 폭력입니다. 그 부분을 다른 부서는 몰라도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여성들을 보호할 장치나 또 다른 입법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성범죄에 관련되어서 있는지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 장관님, 촉법소년 하향 관련해서 지금 숙의 과정 진행 중이고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민대표단도 선정한다고 하셨고 특히 그 중에서 청소년의 경우에 한 120명 정도 숙의 절차에 따로 포괄해서 진행한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청소년 인권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전제하고 아주 섬세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 점을 꼭 잘 고려해서 부처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성평등가족부에서 하셨던 공개포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히 엄벌주의에 기반한 형벌 강화 이전에 보호조치를 내실 있게 하고 실질적인 교화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는 이런 목소리들 다 내셨거든요.

장관님도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주희 위원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 중의 하나가 촉법소년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지요.

○이주희 위원 현행 소년법상으로도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고요. 또 보호관찰도 부과되고 있고 또 위반 시 처분변경제도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강한 처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단순히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좀 잘 전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촉법소년 범죄 유형을 보면 여전히 절도나 폭력 이런 범죄들이 다수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무인점포가 증가하거나 또 사회경제적인 변화, 가정환경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또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성범죄의 경우에 적발률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았다. 과거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그렇다는 사실 단정이라기보다는 잘 살펴서야 한다. 그래서 범죄의 유형과 그 원인에 대해서 충실하게 분석하고 그 각각에 맞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재범률을 낮추고 또 교화 효과 높일 방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통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소년원 과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 수용률이 250%, 2인실에 4명 이상이 수용 중이고요. 이렇게 몸 하나 가눌 곳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화가 제대로 될까요? 절대 안 되지요.

이 관련 기사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침대도 없이 바닥에 나란히 눕는 칼잠이 일상화된 환경, 수면권과 위생권, 심리적 안정권까지 침해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정말 냉정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이 흉포한 범죄자 이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부탁드립니다. 2분 아닌가요?

○위원장 이인선 아니요, 답변 포함 3분인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양성평등, 6시에 우리 다 가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위원 저도 연령 하향 찬반토론회 진행 중인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도 당연히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 부분도 성평등가족부에서 꼭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소년재판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서범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지요?

○서범수 위원 할 건데요.

○위원장 이인선 할 겁니까?

하여튼 이번에 한지아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지아 위원 장관님, 촉법소년에 대해서 다시……

그게 보호처분이 보통 있지요. 가능하지요? 형사처분이 안 된다는 그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하나 충분하지 않느냐는 장관님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만약에 연령이 하향된다면 판사가 정하는 거겠지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요. 교화 가능성까지 보고요. 미성년자가 그 대상이었는지까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장관님께서 제가 보니까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신 상황에서 마치 공론화를 가는 것 같아서 분명히 여쭙습니다.

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제가 공론화를 이끄는 부처의 장으로서 그 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위원 오케이.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공론화하시면, 원론적인 답변 주실 거면 답변 안 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물론 절도 이런 게 많지만 성폭력 현황만 봤을 때 촉법소년이 86%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에. 디지털로 적발률이 높아졌다고 하기에 86% 증가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이 부분은……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통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통계들을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인 합의, 원론적인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장관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시고 그거는 국민의 여론과 그리고 실제적인 수치들이 정해야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소년사건의, 특히 성범죄의 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데이터가 밖으로 나와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년부 판사님들께 이 내용들을 확인했더니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로 인해서 10대에 있어서 성범죄가 증가한 면이 크다 그러면서도……

○한지아 위원 그걸로 적발이 많이 됐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 범죄임니

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러니까 존재하는 범죄이지만 우리 사회가 소년의 디지털로 인한 어떤 범죄를 막는 데 실패했다.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심각성을 그러면 심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86% 증가했어요. 적발률이 높아져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것이 아니다,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가면 안 되는 방향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성평등가족부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는 저희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늘 주신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시겠지요?

○정춘생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선 3분 드릴까요, 1분 드릴까요?

○정춘생 위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장관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장관님, 오늘 재판소원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들이 있어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소원을 누구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서 ‘나 결정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30일 이내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리고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명백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범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확인하고 싶고요.

한 가지,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평등가족부 출범할 때 많은 기대를 했었고 장관님한테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나 인사말에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낙태죄 폐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공백 상황들을 철저히 만들어 나가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보고자료도 없고 인사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여성들의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이 안 되고 있고 어떤 건강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물들을 지금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관련된 목소리를 성평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내지 않으면 이게 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지 몰라요. 헌법불합치판결 된 지 지금 벌써 7년이 되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7년 차입니다.

○정춘생 위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소위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계 부처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의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계속 만나서 논의할 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더 기다려 주시면……

○정춘생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더 절박한 문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현장에 있는 단체분들 통해서 여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무겁게 듣고 저희가 여러 부처와 함께 더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속도를 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그 문제는 산모건강법 또 태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숙의를 하시고요.

다음, 서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정의연 문제를 제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국민 사기극이다, 왜 거짓말하느냐를 이야기한 겁니다, 국고보조사업이든지 출연금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든지 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건 안 받아. 우리 순수하게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몇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세월이 조금 지났다고 ‘국민들이 까먹었겠지. 그 내용을 모르겠지’ 하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평등가족부도 짬짬이가 된 거야.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어서 단체로 선정을 하고……

아까 출연금이라고 하셨어요, 국고보조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출연금입니다.

○서범수 위원 출연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출연금이면 이게 국가 예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지요. 그걸 줬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문제를 삼는 거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건 나도 알아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내가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자기네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든지 지원금이든지 그걸 안 받겠다. 우리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뻔뻔스럽게 신청하고 그걸 또 성평등가족부는 모른 척 선정을 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대국민 사기극이지, 아니에요?

그리고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가장 큰 문제가 성평등가족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는 못 하지요. 예방에 대한 부분은 성평등가족부가 해야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겠어요, 이게? 왜 저런 살해사건까지 경찰이 못 막았겠어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제가……

○서범수 위원 전자팔찌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전자장치와 위치 처분이……

○서범수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주는 성범죄로 인한 전자팔찌는 보호관찰소에서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거 말고 스토킹 관련해서 전자팔찌도 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처분 가능합니다.

○서범수 위원 전자팔찌 경찰에서 채우지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서범수 위원 경찰에서 채우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못 채웠습니다.

○서범수 위원 경찰에서 채우고 또 그걸 피해자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오면 할 수 있잖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그런데 경찰이 그걸 잘 안 했다고요. 신고가 세 번인가 들어왔는데 그걸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왜 안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 줘야 되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 파악을 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금 경찰이 1만 5000건을 전수조사한다고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경찰청 차장과 담당 형사국장님들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왜 청구가 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찾아봤더니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잠정 3-2와 4 위치 처분까지 기각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경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아니지요.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기각되는 판결이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신청을 하면 받아 줬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닙니다. 30%도 되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 걸 경찰관들이 인식을 잘 못 하고 놓쳤어요, 이번 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번에 많이 놓쳤습니다.

○서범수 위원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성평등가족부에서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나 하나씩 따지면서 현장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청을 만났고 경찰청과 정기적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이제 다 질의한 것 같고 혹시나 양당 간사님들 하실 말씀……

○조은희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질의하세요.

○조은희 위원 먼저 해도 돼요?

○김한규 위원 질의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장관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다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뭘니까, 성평등가족부의? 뭘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여성폭력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여성폭력 방지를……

○조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처 간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해서 보호조치 실효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이 서 위원님 질의에 ‘경찰청 만났다’ 그게 아니에요. 1만 5000건 전수 점검에 나섰는데요. 경찰만 실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처 간 칸막이가 좀 없어지지요. 그 질의를 하시는데 ‘경찰청 만났다’ 그다음에 뭐…… 제가 듣다가 얼척이 없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제대로, 없도록 하겠다’ 이거는 교과서 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본 위원님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탈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가 의결됐고 방어권을 병자해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 2차 가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2차 가해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성평등가족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데에 목소리를 내야지요. 그래서 제가 제2의 박원순 사건이 되지 않도록 성평등가족부가 나서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동문서답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일 처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저희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여러 다양한 당에서 여러 성폭력 사건 이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양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처에서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뒷북치는 부서, 집권 여당의 눈치 보는 부서, 존재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부서라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드린 말씀은 작년이었나요, 장제원 의원 사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자 했는데 그런 모든 건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저희가 휘말리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조은희 위원 조심하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장관님,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답변해야 되는지 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김윤 위원은 아까 1분밖에 못 뵈는데 1분만 더 하시면 된단니까 1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응급실에 자살 시도한 학생들이 오는데요. 1년에 몇 건쯤 되는지 아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제가……

○김윤 위원 한 6000건쯤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김윤 위원 그 학생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그런 사례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아마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범부처가 연계해서 청소년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하는 것만 들여다보면 안 된단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김윤 위원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리면,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군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시고 그게 성평등가족부의 어떤 부서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지를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각의 영역에서, 아까 청소년 위기 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사업 대상을 통해서 발견된 고위험군들이 청소년 위기 상담센터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이인선 감사님, 말씀……

○서범수 위원 안 하신다는데 자꾸……

○위원장 이인선 그래도 감사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데 불만 가지시지 말고요.

○**김한규 위원** 질의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위원회 또 열 것……

○**위원장 이인선** 예, 그렇게 또 열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를 할까요, 말까요?

○**위원장 이인선** 다음에 한 번 더 열어야 되겠다 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열고 하도록……

○**조은희 위원** 지금 간사 협의가 안 됐어요.

○**위원장 이인선** 안 됐어요?

하여튼 김한규 위원님 잠시 소회를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김한규 위원** 저는 소회는 특별히 없고요.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의 뛰어난 영도력으로 저희가 2등 상임위를 했는데 진짜 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1등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이런 안타까움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후반기에 다시 꼭 성평등위를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장관님 답변 내용에 여당 위원이 볼 때도 약간 조금 더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 방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장관을 하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하반기에 다시 성평등가족위에 위원님들이 오시면 그때 질의에서는 조금 더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리크루팅(recruiting)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선** 조은희 위원님 혹시 말씀할 게 있으면요.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이 사실상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쉽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공명정대한 리더십과 김한규 간사님의 헌신적인 조율 또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실한 위원회 보고와 활동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인선 위원장님의 함께하는 리더십에 가끔 서운하기도 했지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3월 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이 우리 성평등가족위가 2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님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5개 상임위 중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자위, 여가위, 재경위, 국방위 다 우리 국힘의 상임위원장인데 법안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성평등위 간사로서 지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성평등가족위가 민생과 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중심을 아쉽게도 잘 잡아 주신 위원장님과 진정한 협상과 설득의 묘가 무엇인지 보여 주신 김한규 간사님,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공명정대한 리더십에 제가 죄송한 건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했고 또 장관님이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답변 시간 이런 거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더 공명정대하게 했어야 되는데, 국힘에 있는 야당 위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시작을 했으면 목표하는 시간까지 마쳐야…… 검직 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2위가 성평등가족 위고 3위가 산자위고 4위가 재정위고 그다음 5위가 국방위고 굉장히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위원님이 살짝 비틀어 얘기하는 거 나중에 사적으로 제가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긴급하게 해서 보람이 있었던 거는 딥페이크 피해 대응을 할 때 양당 간사님께서 다른 부처에서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나서서 굉장히 긴밀하게 해서 산하기관하고 예산부터 해서 많이 받아 온 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양육비 선지급 문제도 우리가 출발을 시키면서, 특히나 김한규 간사님하고 양당 간사님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지금 자리가 잡혀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법이 통과돼서 잘 적용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사업도, 교제폭력 특별법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진하지만 우리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시작하게 된 게, 첫발을 디디면서 굉장히 많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오늘의…… 목표는 6시였는데 진행이 30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요.

○**김한규 위원** 아직 해는 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아직 두 달이니까 현안이 생기면 또 전부 다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안이 생기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서면질의 정춘생 위원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님과 그 외 기관장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8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정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검직 위원회로 왔다 갔다 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 말씀 드리고, 원민정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 윤 김한규 박홍배 서명옥 서범수 서영교 이달희 이연희 이인선 이주희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정춘생 조은희 한지아

○청가 위원(1인)

김남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성평등정책실장 이경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성평등정책관겸고용평등정책관직무대리 조민경

안전인권정책관 김가로

청소년정책관 윤세진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윤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채현일	김 윤	더불어민주당	2026. 3. 20.

○의안 회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5)

2월 5일 회부됨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2026. 2. 9. 김한규 의원·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3)

2월 10일 회부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2)

2월 19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3)

2월 23일 회부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6)

이상 2건 2월 27일 회부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6)

3월 5일 회부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5)

3월 6일 회부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0)

이상 2건 3월 9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5)

3월 10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9)

3월 17일 회부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1)

3월 18일 회부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7)

3월 19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9.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2)

3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1)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0)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7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3. 17.	시행규칙